

# 茶戶里遺蹟 發掘의 意義

이 건 무\*

## I

우리나라 원삼국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慶州 朝陽洞유적과 昌原 茶戶里유적을 들 수 있다. 두 유적 모두 그동안 공백기로 남아 있던 시기의 역사복원 그리고 고대국가 성립시기를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유적이다. 조양동유적<sup>1)</sup>은 원삼국시대 묘제를 확인하게 된 최초의 유적이며, 전 기간의 묘제 변천을 알아볼 수 있는 표준유적이다. 이에 비해 다호리유적<sup>2)</sup>은 원삼국시대 전기 무덤유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특이한 형태의 목관과 장제의 확인으로 그동안 막연히 토광묘, 또는 목관묘라고 부른 원삼국묘제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한 유적이다. 또한 철기, 칠기 등 다양하고도 많은 부장품이 완벽한 상태로 출토되어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알려준 유적이기도 하다. 올해는 다호리유적을 발굴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발굴 20주년을 맞이해 이 유적을 새롭게 조명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호리유적은 1988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이래 1992년까지 모두 일곱 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내용은 進展報告 형식을 통해 학계에 어느 정도 알려졌으나 상세한 정식보고서는 간행되지 않았고 단편적으로 취급한 몇몇 논문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발굴에 주

\* 문화재청장

1) 國立慶州博物館, 2001, 『慶州 朝陽洞遺蹟Ⅱ-사진-』

\_\_\_\_\_, 2003, 『慶州 朝陽洞遺蹟Ⅱ-본문-』

2) 李健茂 外, 1989,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I』, 『考古學誌』第1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_\_\_\_\_, 1991,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II』, 『考古學誌』第3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_\_\_\_\_, 1993,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III』, 『考古學誌』第5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_\_\_\_\_, 1995,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IV』, 『考古學誌』第7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도적으로 참여한 단원의 하나로 부끄러움을 느끼며 종합보고서 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항상 마음이 무거움을 느끼고 있다. 이번 다호리 발굴조사 20주년을 계기로 좋은 보고서가 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II

다호리유적 발굴의 의의를 살펴본다면 크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을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원삼국시대 초기 목관묘의 실체와 장제의 파악이 가능하게 된 점이다. 둘째, 묘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당시의 신분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셋째, 원삼국시대 초기의 철기문화 내용과 함께 철을 중심으로 한 국제무역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게 된 점이다. 넷째, 이 시기에 문자와 도량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된 점이다. 다섯째,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철기문화에 대한 내용이 확인된 점이다. 이밖에도 많은 내용이 새로이 밝혀졌으나 상기한 것을 중심으로 하여 발굴의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 〈木棺墓와 葬制〉

다호리유적은 무덤 수십 기가 모여 있는 집단 매장묘역으로, 확인된 묘제는 목관묘이다. 묘역의 규모로 보아 인근에 대단위 聚落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원삼국시대 전기에 속하는 이 목관묘들은 제1호묘의 예에서 보듯이 통나무 목관을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통나무 목관은 韓國式銅劍文化期の 和順 大谷里유적<sup>3)</sup>에서 처음 발굴되었는데 목관 저부의 소편만 남은 것이라 당시에는 목관으로 생각하지 못해 石棺墓로 報告되었다. 한국식동검문화기 積石木棺墓의 통나무 목관 전통이 원삼국시대 묘제에 그대로 繼承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통나무 목관은 기왕에 알려졌던 平安南道, 黃海道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西北地域 목관묘의 목관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서북지방의 목관묘는

3) 趙由典, 1984, 「全南 和順 青銅遺物一括出土遺蹟」,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오늘날의 목관과 같이 납작한 板材로 結構된 것이다. 이러한 板材結構形 목관은 樂浪漢墓에서 보이는 목관과 같은 中國墓制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朝陽洞유적과 같은 원삼국시대 목관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통나무 목관은 통나무를 半截한 뒤 그 내부를 파내어 만든 구유형의 獨木棺이다. 중국 四川지역 戰國時代 묘제에 이와 유사한 船棺葬의 獨木棺이 있어 그 관련성이 주목되나 좀 더 확실한 자료를 찾아야 할 것이다<sup>4)</sup>. 그러나 전국시대의 銅鈹 유적 분포를 보면 이 사천지역을 포함한 중국 남부지역 일대에서 많이 보이고 있고<sup>5)</sup>, 또 이 사천지역과 인접한 雲南省 江川의 戰國末~西漢初에 속하는 李家山墓에서는 角形銅器가 출토된 바 있어<sup>6)</sup> 당시 중국 남부지역과의 접촉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관묘의 수용이 중국 남부지방의 구유형 독목관 계통에서 먼저 이루어졌다가, 후에 중국 북부지역의 판재결구형 목관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목관묘 형식이 교체되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다. 三韓의 칭호가 생기기 이전의 辰은 원래 주체인 토착사회의 총칭이고 韓은 객체인 流移民 사회의 전칭이며 후에 韓의 칭호가 점차 확대되었다는 주장을 감안해 보면<sup>7)</sup>, 이 통나무 목관이 초기철기시대 이래 토착사회의 매장주체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이후 漢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腰坑도 받아들이고 서서히 結構形木棺墓로 바뀌어 갔다고 생각된다.

1호묘에서 출토된 통나무 목관을 살펴보면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통나무 목관은 통나무를 반절한 후 내부를 각각 구유형으로 파내어 관의 몸체와 뚜껑으로 사용한 것인데, 몸체와 뚜껑의 한쪽 측면(足部)에는 각각 ‘ㄴ’자형 구멍을 파서 굵은 끈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관의 또 다른 측면(頭部)에는 상하에 각기 2개씩의 홈이 파져 있어 X자형으로 줄을 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ㄴ’자형 구멍과 홈들이 무슨 역할을 한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나무 목관은 내부를 파내었다고 하나 참나무 재질에 길이 2.4m, 폭 85cm, 높이 65cm 규모로 매우 무거워 運柩가 용이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 무거운 목관을 구름으로 옮기는 데는 힘이 많이 들었을 것이

4) 四川省文管會·大邑縣文化管, 『四川大邑五龍戰國巴蜀墓葬』, 『文物』 1985-5, 中國  
四川省文物管理委員會·蒲江縣文物管理所, 『蒲江縣戰國土坑墓』, 『文物』 1985-5, 中國  
成都市文物考古工作隊·蒲江縣文物管理所, 『成都市蒲江縣船棺墓發掘簡報』, 『文物』 2002-4, 中國  
5) 孫机, 『我國古代的平木工具』, 『文物』 1987-10, 中國  
6) 雲南省博物館, 『雲南江川李家山古墓群發掘報告』, 『考古學報』 1975-2, 中國  
7) 李丙燾, 1983, 『韓國古代史研究』, pp.256-259

다. 따라서 끌어서 운구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운구는 족부 쪽의 ‘ㄴ’자형 구멍에 줄을 꿰어 당길 수 있도록 하고 두부 쪽의 홈에는 X자형으로 줄을 걸어 당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운구 방법은 매우 특이한 것이다. 우리의 조사 예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일본의 고분시대 古墳造營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나무썰매(修羅)나, 일본의 江戸時代 築城에 사용된 大石運搬道具 修羅에서 이러한 ‘ㄴ’자형 구멍을 찾아볼 수 있다<sup>8)</sup>. 무거운 것을 운반하는 데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줄을 당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大事를 치루는 데에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지석묘의 천국인 우리나라에서 무거운 돌을 옮기는 데에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며 그 전통이 그대로 남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일본 奈良의 스야마(巢山)고분(4세기말~5세기초)<sup>9)</sup>에서도 목관의 뚜껑과 배(舟)모양의 목제품이 출토되었는데 목관 뚜껑은 통나무를 파낸 형식이라 윗부분이 둥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통나무관을 舟形 목제품에 실어서 修羅를 사용하여 고분까지 끌고 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하튼 다호리의 목관 역시 관에 나 있는 구멍과 홈으로 보아 끌어서 葬地까지 옮겼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葬送의 例가 전 지역에 걸쳐 모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出土例에 기대해 보아야겠다.

다호리유적 1호묘의 예를 통해 원삼국시대 초기의 장제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졌는가를 간략하게 알아보자. 특히 1호묘와 같이 많은 부장품을 지니고 있는 무덤을 조영하면서 이루어진 여러 作業過程에 대한 고찰은 당시 원삼국시대 사회상 - 신분 등 階層問題와 社會組織 등 - 의 복원과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통나무 목관에 시신과 부장품(철초동검, 철검, 목함, 유리구슬 목걸이, 판상철부 등)을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 뚜껑이 벗겨지지 않도록 목관의 단측면 아래쪽에서 긴 나무축을 빗장 끼우듯이 질러 넣어 고정하였다. 다음에 전술한 바와 같이 목관을 足部 방향에서 끌어 장지까지 옮겼다. 미리 파놓은 묘광 중앙부에 腰坑을 파고 竹篋을 넣은 다음, 方形豆와 圓形豆에 果實과 같은 祭物을 담아 묘광바닥에 놓고, 자루가 달린 판상철부와 자귀 등을 함께 부장한 후 一次 祭儀를 지냈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 때 마지막으로 밤(栗)을 뿌렸다. 이후 下棺 절차에 들어가는데 족부 쪽은 목관을 끌었던 ‘ㄴ’자형 구멍의 밧줄을 그대로 이용하였고 두부 쪽은 굵은 밧줄을 관 밑에 넣어 사용하였다. 목관 安

8) 北垣 聰一郎, 2007, 「古代の重量物運搬と修羅」 『大王の棺を運ぶ實驗航海』 研究編, 日本

9) 廣陵町教育委員會, 1998, 『巢山古墳現地見學會資料』

\_\_\_\_\_, 2001, 『巢山古墳現地説明會資料』

置 후 줄은 잘라 버렸다. 이후 목관과 토광 사이에 흙을 뿌려 한 층을 덮고 다시 칠기나 칠기 등의 소중한 물건 등을 그 위에 올려놓은 뒤 다시 二次 祭儀를 지냈을 것으로 보인다. 이 二次 祭儀는 被葬者와 가까운 사람들(親族 또는 周邊 邑落의 首長?)이 자신이 아끼던 물건들을 넣어 주며 지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러한 제의는 제11호묘의 유물 출토 상태로 보아 적어도 세 차례 정도가 있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제11호묘 充墳土에서는 漆筒, 화살대, 漆弓 등이 레벨을 달리하며 출토되었다. 물론 제의가 省略되고 물건만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充墳土 내에서 발견되는 유물이 다양하고 활과 화살같이 함께 부장될 유물들이 레벨을 달리하고 있어 제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후 충전토의 레벨이 목관의 높이와 같아졌을 때 다시 목관 위와 충전토 위에 칠기 그릇들을 배열하고 마지막 제의를 지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1호묘 盜掘 당시 피해를 그나마 적게 입은 것은 목관 위의 유물과 木棺 內부의 유물만 노렸기 때문인 것으로 믿어진다. 제의가 끝나고는 묘광에서 파낸 흙을 덮고 얇은 封墳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1호묘와 2호묘가 아주 隣接해 있는 사실로 보아 잘 알 수 있다. 장제문제에 대해서는 후에 따로 논하도록 한다.

### 〈身 分〉

다호리유적의 각 묘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면 피장자의 신분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

1호묘가 묘 자체의 규모 면에서 優越性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가장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고, 유물 내용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유적 일대 小國의 수장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중국제품, 일본제품 등 國際交易에 의한 물건들이 있는 점, 副葬容器가 土器에서 漆器로 代替되는 점, 腰坑 출토 유물에서 懸隔한 차이를 보이는 점, 동검·철검·관상철부 등 중요한 물건의 부장 수량 등에서 차이가 보인다. 규모가 비슷하고 인접해 있는 제1호묘와 제2호묘 요갱에서 출토된 유물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제1호묘 요갱의 죽첩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에 비해 2호묘 요갱에서는 鐵器小片, 土器 底部片 1점, 木片, 砥石 2점이 발견되었을 뿐이다. 제2호묘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장품의 規模와 質의 차이에 따른 優越性은 身分 또는 階級의 차이 이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밖에 漆鞘

에 들어 있는 검과 漆鞘附屬具의 材質 그리고 漆鞘 形態의 多樣함도 신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제24호묘에서 출토된 칠초에는 목제 검과부만 있을 뿐 칠초 속에서는 철검이나 동검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조사 당시에는 알 수 없었으나, 후에 光州 新昌洞 工房遺蹟에서 이러한 검신이 없는 목제 검과들이 출토됨으로 해서 僞裝劍 역할의 劍把들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sup>10)</sup>. 필자는 이러한 위장검들과 칠초가 당시의 계급, 예를 들어 魏書 東夷傳 弁辰條의 臣智(신지), 險側(험측), 樊藏(번예), 呂借(읍차) 등에 따라 착용된 것으로 보고 싶다<sup>11)</sup>. 또한 제64호묘에서 出土된 鐵鑛石은 무게가 6kg이 넘는 큰 것인데 완성된 鐵製品이 아닌 鑛石이 副葬品으로 出土된 것은 最初의 例로 큰 意味를 갖는다 하겠다. 이 제64호묘의 피장자가 철광산에서 철광채취를 담당하였던 신분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단야구인 鐵鎚가 출토된 제17호묘의 피장자는 대장간을 운영하던 신분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밖에 칠기 부채나 현악기(黑漆板)도 신분과 관계있는 유물로 보인다. 부채는 지휘자가 사용하거나 巫具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현악기는 다호리유적에서 실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필자는 제11호, 제15호, 제17호묘에서 출토된 장방형의 흑칠판이 현악기였을 것으로 생각한다<sup>12)</sup>. 흑칠판의 현악기가 출토된 임당동유적과 비교해 보면 출토위치가 같고, 규모가 동일하다. 가무와 음악을 좋아한다는 위서 동이전 기록도 있어 음악을 담당하던 신분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鐵生産과 國際貿易〉

茶戶里遺蹟에서는 주조철기와 단조철기를 비롯한 많은 철기가 출토되어 철기제작, 특히 단조철기의 제작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철기의 제작수준은 매우 뛰어나 蕨手形裝飾鐵器를 보면 철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쇠를 잡아 늘이고 둥글게 말고 하는 작업은 단조작업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원삼국시대 후기와 가야고분 등에서 보이는 蕨手形裝飾의 전통을 이곳의 철기에서 찾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0) 國立光州博物館, 1997, 『光州 新昌洞低濕地遺蹟 I』

\_\_\_\_\_, 2001, 『光州 新昌洞低濕地遺蹟 II』

11) 李健茂, 1998, 「遺蹟·遺物에 나타난 三韓社會의 生活相」 『한국고대국가의 형성』, 國立中央博物館

12) 李健茂, 註11)의 前掲書

철기제작만 활발하였던 것이 아니라 철 수출을 통한 周邊國家와의 交易 역시 활발하였다고 생각한다. 第1號墓 요갱의 竹篋에서는 중요한 유물들이 몇 점 출토되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것은 橫斷面 梯形의 鑄造鐵斧이다. 이 철부는 이 유적에서 출토되는 철기들 중 유일한 鑄造品인데 그 형태가 독특한 것으로 같은 시기의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형식으로 원삼국시대 전 기간과 삼국시대까지 계속 제작된 한반도 남부 특유의 것이다. 그런데 이 죽협에서 발견된 철부는 釜部 속에 흠으로 된 內型이 그대로 남아 있고, 2枚 1組로 포개져 끈으로 묶여 있었다. 이를 보면 이 철부는 실제로 사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녹여 鐵素材로 再使用할 수 있게끔 만든 일종의 地金 역할을 한 것임이 틀림없다. 또한 이 철부가 출토된 죽협에서는 五銖錢·漢鏡·帶鉤·馬鐸 등의 中國 前漢代 유물들이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들 유물은 바로 이 다호리 목관묘 1호묘의 피장자가 이러한 철부를 가지고 중국과 교역을 한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철부 형태의 일정한 용량을 가진 鐵素材를 보내 주고 대신에 漢代의 文物을 받아 들였던 것이다. 이는 역사기록의 “國出鐵, 濊倭馬韓, 併從市之, 凡諸貿易, 皆以鐵爲貨”(『後漢書』東夷傳 韓條), “國出鐵, 漢濊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三國誌』東夷傳 弁辰條) 내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풍부한 철광석과 발전된 제철기술로 다양한 철기를 제작한 원삼국시대의 小國들은 剩餘生産된 철을 鑄造鐵斧의 형태로 만들어 이 鐵素材를 가지고 中國 漢을 비롯하여 주변 국가와 교역을 하였고 이를 통해 富를 축적하면서 고대국가로 발돋움하였다고 생각된다.

## 〈文字 使用과 度量衡〉

鐵의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자 剩餘生産된 철을 가지고 주변지역과 교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요즈음과 마찬가지로 교역용의 文書를 작성하는 일이다. 즉 물품의 명칭과 수량·가격을 표시한 문서와 領收證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中國에서는 戰國時代부터 이러한 문서가 작성되었다. 제1호묘의 竹篋에서는 鐵素材로 사용된 철부와 함께 붓과 削刀가 출토되었다. 붓과 삭도는 中國의 戰國時代에서 漢代에 걸쳐 제작된 것들과 동일한데 中國에서는 일반적으로 竹篋·竹筩 등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함께 발견되는 것으로는 銅錢·天平·法碼(砝碼) 등이 있다. 붓으로는 木牘이나 竹簡에 글을 써서 領收書 같은 것을 만들고 삭도는 잘못 쓴 글씨를 깎아 내는 지우개 역할을 하고 天

平으로는 금이나 돈을 단다. 이러한 일괄유물은 교역과 같은 경제활동을 위한 용구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비록 다호리유적에서 천평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法碼와 銅錢이 출토되어 이들 유물이 교역 시 사용되었던 문방용구였음을 말해준다<sup>13)</sup>. 그렇다면 적어도 교역에 참가하였던 首長級의 인물들은 문자를 알고 쓸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기원 전에 우리나라에서 문자를 사용하였음을 示唆하는 사료로서 중국의 『史記』 朝鮮列傳의 “....傳子至孫右渠 所誘漢亡人滋多. 又未嘗入見 眞番勞衆(辰)國 欲上書見天子 又擁闕不通 元封二年漢使....”라고 하는 記事를 들 수 있는데 이 문방구가 이를 뒷받침하는 實證의 인자가 된다고 하겠다. 즉 元封二年(기원전 109)경에는 이미 우리나라 남부지역의 상층 계급에서 문자(한자)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1호묘 출토 청동제 法碼와 함께 제59, 61호묘에서 출토된 다수의 자갈돌들은 무게의 比率이 일정하게 1/2씩 줄어들어 法碼로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중국에서도 法碼는 각기 그 무게가 1/2씩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였기 때문에 度量은 물론 衡에 대한 일정한 틀이 갖추어졌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겠다. 특히 鐵素材의 교역에는 무게를 다는 일이 가장 중요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 〈漆工文化〉

다호리유적에서는 수많은 칠기가 출토되어 그동안 잘 알 수 없었던 원삼국시대 초기의 漆工文化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칠은 청동기시대와 한국식동검문화기 유적에서 소편이 발견된 바 있지만 그 실상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었다<sup>14)</sup>. 다호리유적의 칠기는 木胎漆器 중심으로 제작되었지만, 金胎·陶胎·藍胎 등 各種 材質에 옷칠이 모두 사용되었다. 칼집과 쇠창·활과 화살·화살통·검형칠기·목봉 등의 무기류, 두·배·잔·발·원통형용기·합·소호 등의 목제용기류와 주머니호·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 등의 토제용기류, 판상철부와 주조철부의 자루와 같은 공구류, 붓과 부채자루, 소쿠리에까지 칠이 발라져 있어 거의 모든 제품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黑漆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 문양 등에는 朱漆도 사용되었다. 칠을 바르는 이유는 표면을 아름답게

13) 李健茂, 1992, 「茶戶里遺蹟 出土 붓에 대하여」, 『考古學誌』 第4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4) 韓炳三·李健茂, 1977, 『南城里石棺墓』, 國立中央博物館



하려는 장식성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防腐・防銹・防濕・耐熱・防水 등 내용물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6회를 반복해서 칠한 것도 확인되었다. 이밖에도 칠은 접착제로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칠초와 같은 것을 보면 목재 뿐만 아니라 청동금구와 같은 금속의 접착에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호리 출토 칠기는 中國 漢代의 칠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容器類의 形態가 크게 다르고 黑漆 중심이며 주칠이 아주 적은 점 등으로 보아 청동기시대 이래 독창적인 칠기문화의 전통 하에서 제작된 것으로 믿어진다. 칠기 출토상황을 통해서 보면 칠은 상류층에 한해서만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계층에게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된 고급품이었다고 생각된다. 다호리유적 인근에 ‘漆’이 들어간 지명이 많아 이 지역이 칠 생산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후에 조사된 광주 신창동유적의 예를 보면 목제품과 칠기를 생산 하던 전문 공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류층이 직접 관장하며 운영하던 특수 제작공방이 원삼국시대에 존재하였다고 생각한다.

### III

이상 다호리유적 발굴조사의 의의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유적에서는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칠기, 칠기, 목기 등의 새로운 고고자료가 출토되어 당시의 생활상을 복원 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특히 원삼국문화가 토기, 칠기, 묘제의 형식에서 한국식동검 문화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장제와 문자사용, 鐵을 바탕으로 한 國際交易의 면모도 살펴 볼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통나무 목관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목관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큰 성과이다. 이 통나무 목관이 中國 南部地域의 獨木棺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앞으로 考究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라 하겠다. 漆工文化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난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칠이 생활의 많은 부분에 크게 사용되고 고급품으로 인식되었다는 것도 새로 밝혀진 사실이다. 앞으로는 다호리의 칠공문화가 전 시기의 칠공문화 그리고 삼국시대의 칠공문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호리유적을 중심으로 한 철 생산의 면모를 확인하게 된 것 역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칠기제작과 더불어 철 생산이 다호리 사회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생산구조로 정착

되는가를 파악하게 된 점이 그것이다. 철광석과 단야용 철망치 그리고 교역용 철부와 함께 교역 영수서용의 문방구 등은 이러한 철 생산에서부터 교역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향후 다호리지역 주변 일대 어느 광산의 광석으로 철기를 만들었는가를 확인하게 되면 광산의 분포에 따라 다호리의 조직사회가 어느 정도의 범위였는지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 사료의 한계성과 가치를 다호리유적의 조사를 통해 보충하고 살펴볼 수 있었다는데 또 하나의 큰 의의를 둘 수 있겠다.